

# 제주불교 사회사업 새바람

### 불교사회문화원 개원...지역경제·사회·문화 발전 모색

### 보국사 휴양원 추진·불다클럽등 소년가장·장애인 후원

제주불교사회문화원(원장 증인·관음사 주지)이 개원했고 보국사 휴양원 건립이 본격 추진되는 등 제주 불교계가 사회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불교계의 사회운동은 간헐적으로 실시돼왔으나 이번 제주불교사회문화원 개원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또한 주

민들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던 보국사 휴양원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제주불교의 대사회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은 29일 제주 칼호텔 소년회실에서 개원기념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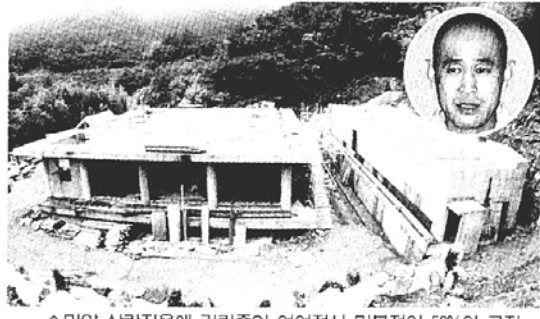
제주도 발전과 주민복리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줄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은 34명의 불자들이 참가, 제주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방면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여 발전방안을 수립, 제주도 사회 발전과 문화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은

지방행정 경제연구소, 문화예술연구소, 전통문화연구소를 두고 제주도의 21세기를 준비하며 인재양성 사업에 매진하게 된다. 또 주요활동계획으로는 연 2회 언론계와 연계하여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연다는 계획이다.

제주불교사회문화원장 증인님은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진 지리적 위치로 독특한 생태와 정서를 가진 내면의 문화가 있다"며 "제주지역 불자들이 불타의 자비정신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을 창립해왔다"고 밝혔다.

## 우리절 불사 밀양 '여여정사' 만불전



△밀양 삼랑진읍에 건립중인 여여정사 만불전이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원내는 주지 정여스님.

## 3층규모에 수련원등 복지시설

7년전 착공...공정 50%  
부지 6만여평 매입  
대웅전·선방도 계획

물 좋고 산 좋고 사람 좋은 밀양시 삼랑진읍을 행곡리에 또 하나의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수련원과 실바타운을 겸하게 될 여여정사(주지 정여)도량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7년전부터 터뒀기 시작한 여여정사의 1차불사는 만불전 건립, 만불전에는 요사채(1층), 어린이 수련원(2층) 만불전(3층)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정여스님은 "재가자와 스님이 함께 불법을 따라 공부하고 수행생활에서 취미활동을 결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여여정사는 평생을 불교에 귀의 공부해 온 불자들을 위한 실바타운 역할과 어린이·청소년들의 수련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장기간의 청사진을 밝혔다.

여여정사는 20년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인 만불전 불사외에도 대웅전, 선방, 재가자를 위한 선원을 비롯 도자기 제작, 꽃가꾸기 등의 취미생활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량을 목표로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스님은 뜻밖의 장애와 맞닥뜨렸다. 절터에 타종교인들이 생식을 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 그들을 설득해 땅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스님은 불사를 위한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백일기도중 타종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 땅을 팔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 이후 불사는 원만하게 풀려 나가게 되었다. 마을에 전해오던 언젠가는 공부한 스님이 들어와 그 터에 절을 조성할 것"이라는 스님이 실현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불사는 6만여평의 부지를 매입하게 되고 4백50평 규모에 수용인원 6백명에 달하는 대규모 법당을 서서히 조성되고 있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도량을 조화롭게 조성한다는 것이 불사에 대한 스님의 지론이다. 범사에 금강암 불사의 경험의 살려 여여정사 불사도 스님의 생각과 고민으로 설계에서 공사가 시작되나 하나 재가자를 배려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자연과 어우러진 도량에서 시비가 끊어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한결같은 부처님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발원하는 여여정사 불사는 서두름이 없이 여여하게 이어지고 있다.

# 사단이상 군 법당완비

### 75사단 '호국철마사' 3일 기공

사단급 부대 가운데 유일하게 법당이 없던 경기도 남양주 75사단에 법당이 건립된다.

이번 불사가 완공되면 우리나라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서는 모두 법당이 들어서게 된다.

10월3일 기공식을 갖는 호국 철마사(주지법사 한주희)는 1백평의 조립식 건물로 조성된다. 그동안 75사단 불자장병들은 부대 창설때부터 20여년동안 봉선사에서 정기법회를 실시했다.

또 최근까지도 군법사조차 없어 군복자 포교는 고사하고 신행활동을 원하는 불자까지도 어려움을 겪었다. 2천여명의 장사병가운데 불자는 약 4백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타종교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다.

호국 철마사 불사는 금년 부처님 오신날 75사단에서 봉선사에 법당

건립을 요청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철마사 법당 건립 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밀운·봉선사 주지)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돼왔다.

이희용 군수단장은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 법당이 갖춰진 것은 군수 30년사에 의미있는 일이다"며 "앞으로는 사단이하 부대의 법당 건립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종근 기자 (gajma@buddhopia.com)

이 성금은 7월에 무의탁·독거노인과 결식 아동 후원을 위해 열었던 하루차집 수익금 중 일부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결식하는 아동을 위해 1차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사진>

이동열 회장은 "급식비를 못내고 결식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해 안타깝다"며 "앞으로 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총포교사회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뿐만 아니라 11월중에는 무의탁·독거노인들을 위한 경노잔치를 개최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 창립대회

주최: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 (전화 234-66)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 본부 창립 대회가 19일 광주 무각사에서 개최됐다.

## 생명나눔회 광주본부 창립

### 불자 30명 장기기증 서약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 창립대회'가 사무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영조스님·중심사주지)는 창립대회 및 청화 큰스님(곡성 성륜사 주지) 초청대법회를 19일 광주 무각사에서 '살을 나눔시다. 생명을 나눔시다'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와함께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경제살리기 헌혈 캠페인이 광주우체국 앞에서 대불청 광주시구, 대불원 광주시구 등 지역 청년·학생 불자들의 실천행사로 전개됐다.

이날 영조스님은 "생명나눔운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깨달아 서로 돕고 서로 살리며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서로가 각자의 생명속에 잠재돼 있는 보살심이 묻히지 않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전남 4대본사주지협의회, 광주 불교사망연합회, 광주불교교육원, 금류회 등이 후원했다.

특히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사후각각기증 및 뇌사 장기기증 서약) 등 3명의 스님이 장기기증을 서약하는 등 30여명의 불자가 장기기증 서약해 생명나눔운동의 인식 확산에 큰 전기가 됐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 보안당 무릉스님 입적

보안당 무릉스님이 17일 세수 86세, 법랍 56세로 입적했다.

스님은 43년 해인사에서 출가해 만공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한국비구승대표 15인중 1인이기도 한 스님은 조계종 감찰위원장, 감제 금산사주지 표창사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이후 20여년간 은거생활을 하며 수행정진했다.

영결식은 20일 대구 해인사에서 엄수했다.

## 광주사직공원 팔각정 무료급식 센터 활용

광주 사직공원 팔각정이 IMF경제로 인한 직장을 잃은 실직자와 노인층의 무료급식 시설과 센터로 이용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사직공원 팔각정이 지난 91년 동물원 사설이전과 이에따른 공익복원 공사로 인해 탐방객이 급격히 줄어들어 1층 매점 이용율이 현저히 떨어져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한 끝에 원호사(주지 현지)로부터 급식시설 제공 제의를 받고 용도변경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호사는 96년부터 광주공원과 운암동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및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종근 기자

## 부산에 '청소년 문화의 집'

### 체육·상담·오락실 갖춰 전문문화 조성

양정청소년회관(관장 범산스님)이 15일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98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계획에 따른 시범 설치기관으로 확정돼 청소년 포교의 새장르에 열거 됐다.

이에따라 양정청소년회관은 기존 강의실을 개조해 소극장 에어로빅실, 헬스실, 상담실, 어학실, 음악실을 비롯 포켓볼과 전전게임기를 갖춘 종합오락실 등이 들어선다. 이밖에 도 문화예술 및 취업관련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탐색 부스, 보컬과 사물놀이, 춤연습을 할 수 있는 공연·음악 연습실, 인터넷부스, 음악·비디오 감상실,

청소년기예, 사랑방, 창작공방 등도 갖추게 된다.

양정청소년회관은 문화의 집 설치 계기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공간제공뿐 아니라 학교와 가정을 잇는 청소년 고충상담처리시스템 및 청소년 미래를 위한 정보는 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윈드롬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양정청소년회관 최문철부장은 "2003년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 150개 설치 예정인데 이에 따른 교계의 발 빠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미희 기자

# 건·강·보·조·식·품·허·가

### 몸을 다스리는 (治身)

#### 자·연·전·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재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술효소정액(松酵素精液)·술선식(松仙食)」을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 스님이 40여년간은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염은 깨와 감초와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 불로화정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술효소정액(松酵素精液)·술선식(松仙食)

정성(精誠)하면서 신에 시는 사람의 신선(神仙)의 주식(主食)은 시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나.

「우리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애고서 물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시할 및 인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러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사 소나무임업주(業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強精)종합식품이 「술효소정액」과 「술선식」이다.

「술효소정액」은 술잎·술순·술배방·술미다·술향기루·술진·술근백파·술공파·술어버섯·백봉령·적복령·백복령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 당귀·감초·표고버섯·홍삼 등 10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늦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술강정종합식품이다.

「술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 없이 「술효소정액」과 똑같은 술의 열두 가지 원료에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이다.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을 날갯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술음식이다.

「동의보감」과 「초조강목」에서 술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기원,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술효소정액」과 「술선식」은 한국식품연구회에서 품질감사에서 적합평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술효소정액」 96.57796호, 「술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 [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예정이다.

**술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술선식(松仙食)**  
원액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